

## 고전소설 천정연(天定緣)의 변주

-〈쌍천기봉〉과 〈명행정의록〉 중심으로

고은임\*

〈차 례〉

1. 머리말
2. 천정연의 변주 양상
  - 1) 〈쌍천기봉〉, 천정연의 불화
  - 2) 〈명행정의록〉, 천정연의 전유
3. 천정연 변주의 의의
4.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고전소설에서 남녀 결연의 운명성과 행복한 결말을 보증해 온 천정연(天定緣) 화소가 기존의 통념과는 다른 방향으로 변주되는 양상을 〈쌍천기봉〉과 〈명행정의록〉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천정연은 그간 부모의 반대나 신분적 격차와 같은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고 애정 관계를 정당화하며, 궁극적으로 행복한 혼인으로 귀결되는 서사를 구성하는 핵심 장치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18세기 향유된 〈쌍천기봉〉과 19세기 향유된 〈명행정의록〉에서는 이러한 관습적 기능에서 벗어난 새로운 양상이 확인된다. 〈쌍천기봉〉에서 천정연은 여성인물 소월혜에게 애정의 완성과 무관한 채, 원치 않는 혼인과 고통스러운 부부 관계를 지속하도록 강제하는 족쇄로 작용한다. 이는 천정연이 여성의 선택권이 부재한 혼인 현실을 가시화하고, 수난을 숙명으로 감내하게 하는 운명론적 인식을 강화하는 기제로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반면 〈명행정의록〉에서는 소예주가 천정연을 인위적으로 위조·전유함으로써 상층 여성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자매(自媒)를 실현한다. 이 과정에서 천정연은 초월적 질서의 발현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이해관계에 의해 조작·활용 가능한 담론으로

\* 아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제시되며, 그 권위의 허구성 또한 드러난다. 본고는 이처럼 상이한 두 사례를 통해 천정연 화소가 고정된 이념적 장치가 아니라 반복과 변주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유연한 서사 요소임을 밝히고, 이 작품들이 당대의 혼인 규범과 성별 질서, 천의에 대한 맹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작품임을 보여준다.

□ 고전소설, 천정연, 변주, 패러디, 여성인물, 애정서사, 수난, 전유

## 1. 머리말

남녀의 운명적 만남은 오늘날의 대중적 콘텐츠에도 자주 등장한다. 그것은 남녀 주인공의 만남을 필연적이며 특별한 것으로 보이게 하며, 그들의 사랑이 견고하고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준다. 신화에서부터 보이는 운명적 만남은 천상과 지상의 이원적 구도 속에서 서사가 전개되곤 하는 고전소설에 역시 자주 나온다. 작품 속 주인공의 비범함이 적당 모티프로 표현된 경우가 많은데, 더불어 주인공 남녀의 결연 또한 천정연(天定緣) 즉 하늘이 정한 필연적 인연으로 설정되곤 한다. 이때 하늘의 뜻은 대개 신물(神物), 꿈, 이인 등을 매개로 지상의 남녀 관계에 개입하며 그들이 결연하도록 이끈다.

고전소설에서 천정연은 애정에 기반한 남녀의 자유로운 만남이 금기시되었던 전통시대에 애정 관계를 합리화하는 명분을 제공했다고 여겨진다. 〈숙향전〉, 〈숙영낭자전〉과 같은 작품에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연을 맺는 남녀의 사랑이 하늘의 뜻에 의한 것이라 설정됨으로써 부모의 명보다 우위에 있는 하늘의 명이 그들의 만남을 정당화시켜준다는 것이다.<sup>1)</sup>

1) 김일렬, 「조선조 소설에 나타난 효와 애정의 대립-〈숙영낭자전〉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4; 김일렬, 「애정소설에 나타난 천정연분론」, 『개신어문연구』 14, 개신어문학회, 1997; 류상숙, 「초기 고전소설의 천관념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20.

나아가 <숙향전>의 천정연분은 남녀 주인공의 현격한 신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세속의 유교적 예제나 봉건적 신분 관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해석되기도 했다.<sup>2)</sup> 여기서 천정연은 현실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재현한 게 아니라 현실 상황이 천정의 논리를 필요로 했다고도 논의되나,<sup>3)</sup> 차별적 관계를 지양하고 부정하는 저항의 기제, 한편으로는 초월적 논리가 개입하지 않고는 신분차가 나는 남녀 결연이 불가능한 조선의 현실을 알려주는 장치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천정연은 신화적 사유를 계승한 것으로, 인물이 자신의 주체적 의지나 감정보다 하늘의 뜻에 의지하고 순응하는 서사를 구성하기에 보수적 사유체계를 드러낸다고 해석되기도 한다. 양혜란은 기봉류(奇逢類) 소설에서 남녀가 결연하는 방식을 신물형(神物型), 지인지감형, 애정성취형으로 나누고, 하늘의 계시나 초월적 힘이 개입되어 남녀에게 신물(神物)이 주어져 결연하는 천정연의 서사에서 운명론적 인식이 가장 강하다고 주장하였다.<sup>4)</sup> 한편 결연징표에 대해 논의한 노보윤은 그것이 남녀의 자유로운 만남, 결연을 보장해주는 화소로 작용하며 결연서사가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고 하였다.<sup>5)</sup>

이처럼 천정연분으로 진행되는 서사는 그것 없이도 남녀가 자유롭게 만나 애정 관계를 맺는 서사보다는 운명론에 기대는 보수적 의식을 보여준다고 논의되기도 했지만, 대개는 고전소설에서 남녀의 애정 관계를 정당화

2) 이상구, 「<숙향전>의 문헌적 계보와 현실적 성격」,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4; 이명현, 「고전소설에 나타난 천관념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04.

3) 이승은, 「숙향전: 경계 허물기와 동일시의 서사」, 『고소설연구』 44, 한국고소설학회, 2017.

4) 양혜란, 『조선조 기봉류소설 연구』, 이회문화사, 1995, 123~126쪽.

5) 노보윤은 결연징표를 천부형(天賦型), 신물형(信物型), 제시형(提示型)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에 따른 결연서사의 특징과 의미를 논의하였는데 이때 천부형과 제시형이 초월적 존재가 개입하는 것으로 천정연에 해당한다. 노보윤, 「방각본 고소설의 결연서사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24, 172쪽.

하는 명분으로 작용하거나, 우여곡절 속에서도 결국 혼인으로 귀결되는 행복한 결말의 단서가 된다고 여겨져 왔다고 할 수 있다.<sup>6)</sup>

그런데 천정연이 남녀의 애정 관계를 정당화하는 명분이나 남녀를 행복한 혼인으로 이끄는 단서가 아니라, 결혼에 속박되어 힘든 혼인 생활을 지속하게 되는 계기나, 속세의 인간이 스스로 연분을 만들기 위해 이용하는 도구로 기능한 사례가 있다. 18세기 향유된 〈쌍천기봉〉과 19세기 향유된 〈명행정의록〉이 그러한데 이 두 작품에서 천정연은 그간의 통념에서 벗어난 양상을 띠고 변주된다. 본고는 그 지점에 주목하여 두 작품에 나타난 천정연의 양상과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sup>7)</sup>

## 2. 천정연의 변주 양상

### 1) 〈쌍천기봉〉, 천정연의 불화

‘한 쌍 팔찌의 기이한 인연’으로 번역되는 〈쌍천기봉(雙釧奇逢)〉에서 팔찌로 인연을 맺는 인물은 이몽창과 소월혜이다. 이들의 인연을 이어준 것은 이몽창의 조부모인 이현과 유요란이 혼인의 증표로 나눠 가진 자금 팔찌 한 쌍이다.

갓 혼인한 이현과 유요란은 이현이 과거시험을 보러 떠나면서 이별하게 되는데, 장원급제한 이현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여러 곳을 떠돌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유요란 역시 부친상을 당한 뒤 계모가 강제하는 매매혼을 피해 유랑하면서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낸다. 그런데 소성의

6) 천정연은 애정서사뿐 아니라 영웅소설 등 고전소설 전반이 즐겨 취하는 화소이다. 김진영·차충환, 『화소의 결구방식을 통해 본 영웅소설의 유형성』, 『어문연구』 29(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1, 156쪽.

7) 선행연구에서 선본으로 제시된 한중연 소장본 〈쌍천기봉〉 18권 18책, 한중연 소장본 〈명행정의록〉 70권 70책을 텍스트로 삼는다. 인용 시 작품명과 페이지를 제시한다.

배려로 유요란이 그 집에 기거하다가 우연히 유배가던 이현과 재회하고 함께 유배지에서 가 지내게 된다. 이후 해배되어 상경하는 길에 그들은 소성의 집에 들러 감사 인사를 전한다. 이때 유요란이 자금 팔찌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시녀 운아가 주워 소성에게 전하게 된다.

이현과 유요란의 증표였던 팔찌는 이때부터 초월적 의미를 갖는 신물(神物)로 기능한다.<sup>8)</sup> 팔찌를 잃어버린 유요란과 팔찌를 얻게 된 소성의 꿈에 각각 유요란의 부친이 나타나 유요란의 손자와 소성의 손녀가 배필이 될 것이니 그때 그 팔찌가 합쳐지게 하라는 말을 전한다. 이에 팔찌를 얻게 된 소성은 그것을 단단히 싸두고 꿈을 기록해 두어 훗날의 인연을 기다리게 된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유요란의 손자 이몽창과 소성의 손녀 소월혜는 팔찌의 인연으로 이어져 배필이 된다. 그러나 운명으로 엮인 이들의 관계는 그리 낭만적이지도,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특히 소월혜의 입장에서 천정연은 원치 않은 혼인 생활의 족쇄처럼 작용한다.

소월혜의 부친 소문은 대도독으로 임명되어 강서에 창궐한 도적떼를 진압하기 위해 출정했다가 대패하여 겨우 사형을 면하고 절강 독부 여운의 막하 종사관으로 가게 된다. 이에 노모와 자식들을 호광에 있는 서숙 노태감에 맡기는데, 소월혜는 그곳 후원에서 두문불출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이때 소월혜는 부인 상씨의 상구(喪柩)를 안장(安葬)하러 다녀오던 이몽창의 눈에 띄어 청혼을 받게 된다. 그런데 그것은 예법에 어긋난 것일뿐더러 청혼이라기보다 협박에 가까운 것이었다.

인호야 방문을 열고 쇼저[소월혜]를 바라며 절하니 쇼제 신식이 춘 지 ㄹ호

8) 여기서 팔찌와 얽힌 인연은 옥황상제와 같이 명시적인 천상의 존재가 아니라 사망한 유요란의 부친이 꿈에 나와 인연을 예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양혜란은 신물(神物) 접지형을 다시 천강형(天降型)과 비천강형(非天降型)으로 나누고 〈쌍천기봉〉을 비천강형으로 분류하였는데, 비천강형 역시 초월적 존재의 뜻에 순응하는 결함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천정연으로 볼 수 있다. 양혜란(1995), 앞의 책, 42~52쪽.

야 박헌 드시 셋거늘 한님[이몽창]이 공수하고 읍혀야 곱오디, “복은 지나가는 유익이러니 우연이 소저의 팔덕이 구전헌 상을 보니 취코즈 뜻이 엷디 아나 당돌호물 닛고 이에 와 고흐느니 쇼저는 용사호쇼서.” 쇼제 강잉호야 단좌하고 물을 아니하니, 심이 눈을 쏘와 바라보와 흠모호는 뜻을 이긱디 못호야 다시 닐오디, “쇼제 엷디 너무 박헌 체호느뇨? 금일 거죄 네 아닌 줄 모로디 아니나 쇼심이 경스 사름으로 이곳의 다시 니르미 쉽디 아닐 거시미 권도로 언약을 두고즈 호미 쇼제 만일 순히 디답호실던디 쇼심이 공경호야 도라가고 종시 함 목호실던터 욱된 거죄 이시리이다.” 쇼제 불연 변색호여 왈, “성디디티의 남네 니의 격절호거늘 엷던 광직이 니르러 녀의 규수를 디호야 누욕호미 겁거늘 유모는 어디 ㄹ판도 노작를 부르지 아닛느뇨?” 쇼리를 응호야 일위 노양냥이 드러와 싱드려 닐오디, (...) “우리 쇼제 규둥의셔 레의를 디회시거늘 엷디 방외 남즈를 디호야 혼스를 허락호리오? 다만 혼 일이 이시니 우리 쇼제 가지신 보즈금 팔쇠 혼 딱이 이셔 신인이 ㄹ르치디, ‘이 팔쇠 혼 딱 가지니 쇼저의 비필이라.’ 호야시니 상공의 있느니잇가?” (〈쌍천기봉〉 권7, 87~89쪽.)

이몽창은 첫 만남에서 소월혜를 흠모하게 되는데 자신이 경사 사람으로 곧 떠나야 하니 언약을 이루자면서 자신의 청에 순히 답하지 않으면 욱된 거조가 있을 것이라 이른다. 이에 소월혜는 발연 변색하여 “엷던 광직(狂客)이 니르러 녀의 규수(閨秀)를 디호야 누욕(累辱)호미 겁”나면서 서둘러 유모를 불러 내쫓으려 한다. 처음 보는 남성의 황당한 위협에 소월혜의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몽창의 무례한 청혼이 계속되고, 유모가 나서 소저가 지닌 팔찌의 다른 쌍을 가진 이가 소저의 배필이라는 예언을 전하며 청혼을 거절한다. 이에 이몽창은 그 말을 비웃고 그런 혼인을 바라다가는 종신토록 혼인하지 못할 것이며, 소저가 만일 자신을 저버린다면 두 명의 남성을 섬겼다는 구설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협박조의 말을 남기고 돌아간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이몽창이 어느 날 조모의 침소에서 소월혜 처소에

서 보았던 맑은 기운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팔찌를 발견한다. 조모로부터 팔찌에 얽힌 예언을 전해 듣자 소월혜와 천정연분임을 확신한다. 이에 어사가 되어 다시 호광으로 돌아가 팔찌를 제시하여 소월혜와 혼인하게 된다.

이몽창의 입장에서 팔찌가 이어준 천정연은 첫눈에 반한 소월혜와 결연할 수 있게 해주는 명분으로 기능한다. 그것은 첫만남에서 이몽창이 소월혜에게 보인 무례를 별일 아닌 일로 무화시키고 혼례를 순조롭게 만든다. 그런데 소월혜의 입장에서 팔찌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몽창이 팔찌를 증표로 내밀자 팔찌의 인연을 알고 있던 노태감과 조모는 환희하며 혼사를 진행하지만 소월혜는 기뻐하지 않는다. 천정연분이란 명분에 매여 혼례를 하면서도 무죄한으로 기억되는 첫인상의 불쾌함이 가지지 않았는데, 혼례 후 바로 황명을 받아 경사로 가게 된 몽창이 비로소 불고이취(不告而娶)의 사실을 전하며 기다리라 이르자 소월혜는 “크게 놀나고 더욱 증분(增忿)”한다.<sup>9)</sup> 소월혜에게 천정연분은 원치 않은 사람과의 비례한 혼인에 구속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소제 탄왈, “어미는 혼곳 얼굴이 곱고 물이 빛으며 괴특한 양으로 아느냐? 니싱이 형실이 쾌악흐른 니르디 물고 은연이 불고이취호앗시니 그 부되 알던디 엇디 놀을 용납허리오? 내 당초 덩흔 뜻은 니싱의 욱을 본 후 심규의 평싱을 늑고즈 흐더니 조되 주당흐시니 츫 심스물 고치 못호여 안연이 낮출 드러 니싱을 좃츠니 타일 니싱이 날노써 구학의 녀흔 후 굿치리니 유모는 불디어다.” (〈쌍천기봉〉 권7, 176~177쪽.)

이몽창이 떠나고 소월혜가 유모 운아와 나눈 대화이다. 소월혜에게는 천정연분에 대한 기대나 고려가 없다. 팔찌의 인연을 굳게 믿는 조모의 뜻에 따라 혼례를 치르지만 이몽창의 “욕을 본 후 심규의 평싱을 늑고즈”

9) 〈쌍천기봉〉 권7, 125쪽.

한 것이 소월혜의 뜻이었다. 사대부가 여성이 외간 남자를 대면하고 나서 다른 남성과 혼인하는 것은, 첫만남에서 이몽창이 한 말처럼 “이성(二姓) 섞기신 물숨을 먼치 못흐”<sup>10)</sup>게 될 일이기애, 천정연분이 아니더라도 소월혜는 이몽창과 혼인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몽창이 팔찌를 보이지 않았다면 소월혜는 혼사를 폐하고 평생 홀로 살겠다는 결심을 고집했을지 모른다. 이후 소월혜가 이몽창에게 보이는 태도와 감정을 살펴보면 “니성의 욕을 본 후 심규의 평성을 높고즈”<sup>11)</sup>한다는 말이 결코 예사로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소월혜는 이몽창의 비례를 혐오하고 그가 불고이취한 사실을 염려하면서 그 부모의 허락을 받기 힘들 것이라 예감한다. 예감대로 둘의 혼인은 이부에서 쉽사리 허락받지 못한다. 이몽창이 귀경하자 그의 부모는 몽창의 재취를 진행하고 자신이 이미 혼인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못한 몽창은 상사병에 시달리다 결국 소월혜와의 사연을 고하게 된다. 그의 부친은 불고이취한 사실에 격분해 100대에 이르도록 장책하고, 조부는 소월혜를 태감(太監) 집안 사람으로 잘못 알고 혼인에 반대하니, 몽창은 엄혹한 집안 분위기에 곧바로 소월혜에게 절혼서를 보내고 만다. 이 일로 소월혜는 또 다시 큰 원한을 품게 된다.

이몽창이 떠난 뒤 불고이취로 혼인한 사실에 격분하고 있던 차, 절혼서가 전해지자 소월혜는 분노의 단계를 넘어 냉소한다. 혼사가 어그러진 손녀를 보며 슬퍼하는 조모 앞에서 소월혜는 평온히 위로하며, “그 위인 실성호 광패지인(狂悖之人)”이며 “네의념치(禮義廉恥) 모르는 무신(無信) 혼 스름”이니 그런 사람을 만난 것도 자신의 팔자이나, “니랑의 부정한 물숨과 음일(淫佚) 혼 거동을 빅 년을 아니 보와도 그리지 아닐가”<sup>11)</sup> 싫다며 오히려 절혼하게 된 사실을 쾌하게 여긴다.

10) <쌍천기봉> 권7, 90쪽.

11) <쌍천기봉> 권7, 182~183쪽.

그런데 그날 밤 이몽창의 첫부인 상씨가 소월혜 꿈에 나타나 자신의 아들을 부탁한다면서 소월혜가 앞으로 이부에서 참혹한 일들을 겪게 될 것이라 알려준다. 꿈에서 깬 소월혜는 자신이 이몽창의 재취라는 사실을 또 한스럽게 여기고 이부에서 겪을 앞날을 근심하게 된다.

그리고 근심했던 상씨의 예언은 어김없이 실현된다. 소월혜가 소성의 손녀이며 이몽창과 천정연분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부에서는 흔쾌히 소월혜를 맞이하고 이제 두 사람 사이 장애가 사라진 듯 여겨졌지만, 소월혜는 여전히 이몽창에 대한 원한을 풀지 못한다. 더욱이 이몽창의 정인(情人)이었던 시비 옥난이 소월혜를 포함하는 사건이 벌어지며 그는 누명을 쓴 채 이몽창의 불신과 증오를 받으며 유배를 가게 된다.

소월혜는 유배길에서 낳은 아들을 잃어버리고 자신도 죽을 고비를 겪는 등 극심한 수난을 당하게 된다. 다행히 도사의 도움으로 도관에서 지낼 수 있게 되고, 그곳에서 이후 반란군을 정벌하고 돌아가던 이몽창과 재회하게 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다. 소월혜는 도사의 도움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던 이몽창을 구하고 정성껏 간호한다. 그러나 이는 부인의 책무를 다하는 도의적 행동이었을 뿐 그는 남편에게 한 순간도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다. 이몽창이 건강을 되찾을 무렵 마침 소월혜의 누명이 벗겨지고 해배 교지가 내려와 함께 경사로 돌아가면 될 순간에도 자신을 친압하려 하는 남편을 혐오하며 몰래 먼저 길을 떠나 버린다.

서사가 전개되는 내내 이몽창이 강압적 행태를 보이는 일이 잦는데 그럼에도 그 기저에는 소월혜에게 애정을 갈구하는 마음이 있었다. 반면 이몽창에 대한 소월혜의 애정은 포착되지 않는다. 이몽창이 소월혜를 흠모한다면서 하는 언행은 그저 자신의 감정에 일방적으로 몰두한 것일 뿐 상대를 배려하거나 신뢰하는 것과 거리가 멀었고, 기분 내키는 대로 거칠고 폭력적인 언행이 잦았기에, 소월혜는 이몽창에게 쉽사리 마음을 열지 못한다. 첫만남의 분한이 희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한 일들이 계속되니 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나날이 쌓여갔다.<sup>12)</sup> 내·외적으로 혼사 장애를 겪다가도 결국 화합의 관계로 나아가 해피엔딩을 맞는 대개의 고전소설 부부 관계와 달리 둘의 관계는 결말에 이르러서도 진정한 화합에 이르지 못한다.<sup>13)</sup>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이몽창이 아닌 소월혜에게 천정연은 애정 관계나 행복한 결말과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팔찌의 인연이 아니었다면 소월혜가 이몽창과의 혼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을지 모른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천정연은 소월혜에게 오히려 불행한 혼인 생활에 구속되게 하는 기제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sup>14)</sup>

## 2) 〈명행정의록〉, 천정연의 전유

〈명행정의록〉은 〈보은기우록〉의 후편으로 〈보은기우록〉 주인공 위연청의 3자 1녀 자녀들의 결연담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가운데 장자 위천보의 서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위천보는 차례로 이월혜, 소예주, 낙선군주, 상빙심과 결연하는바, 원위를 욕망하는 차위 소예주가 이월

12) 소월혜와의 관계에서 이몽창이 보인 패행은 다음의 논문 참고. 장시광, 「〈쌍천기봉〉 여성수난담의 특징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이지하, 「〈쌍천기봉〉 연작의 문제적 남주인공들과 지배적 남성성의 허상」, 『고소설연구』 58, 한국고소설학회, 2024.

13) 〈쌍천기봉〉 결말에 이르기까지 해소되지 않은 이몽창과 소월혜의 갈등은 〈쌍천기봉〉의 후편 〈이씨세대록〉에까지 이어지며, 둘의 관계는 작품 전반에 걸쳐 문제적 관계로 그려진다. 〈이씨세대록〉 마지막 부분에서 황제가 이부 여성들을 초대하자 소월혜는 아픈 몸 상태를 들어 초대를 고사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이몽창이 억측하며 책망하자 소월혜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데, 서사 마지막에 이르러서도 이몽창에 대한 그의 원한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탁원정의 논의 참고. 탁원정, 「〈쌍천기봉〉 연작의 혼인담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분노」, 『고소설연구』 39, 한국고소설학회, 2015; 탁원정, 「정신적 강박증과 육체의 지병-국문장편소설을 대상으로」, 『고소설연구』 41, 한국고소설학회, 2016.

14) 소월혜의 혼인생활을 분석하며 그가 비혼을 회구했으리라 논의한 바 있다. 고은임, 「한글장편소설 여성인물의 비혼(非婚)에 대한 회구(希求)-〈쌍천기봉〉, 〈보은기우록〉, 〈임화정연〉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43, 국문학회, 2021, 251~282쪽.

혜를 출부(黜婦)시키기 위해 벌이는 사건들이 작품 전반(前半)을 차지한다. 이처럼 소예주는 서사적 비중이 큰 인물로 타인을 희생시켜서라도 원하는 바를 쟁취하겠다는 들끓는 욕망에 악행을 저지르지만, 지략이 출중한 전략가로서 예법과 품위, 세련됨을 두루 갖춘 매력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sup>15)</sup> 여기서는 반동인물 소예주가 천정연을 전유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해 가는 양상을 살펴보겠다.

소예주는 자신의 욕망과 악행을 꽤 오래도록 교묘하고도 능숙하게 숨긴다. 그러한 면모는 위천보와 인연을 맺을 때부터 발휘된다. 위천보는 12세가 되던 해 이월혜와 혼인하는데, 이 둘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친들 사이 혼약이 오간 관계라 이들의 혼례는 예법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된다. 외모가 출중하고 재능있는 위천보와 미색과 덕행을 겸비한 이월혜의 혼인은 양가 모두를 흡족하게 한다. 그런데 혼인한 지 얼마 안 되어 위부에 기이한 서찰이 전해진다.

(...) 문창[위연청]이 비록 텨셔 신명흐를 가져시나 맞춘니 흥진의 씨이여 텨연을 그릇 흐엿는지라. 외얏 쫓치 비록 으름다오나 규성[위천보]의 진짓 가연은 미산의 떠러져시니, 신작이 임의 진용을 가져 규성의게 전흐미 이구흐거늘 임의 빙냥의 마즈른 선후를 밧고아시니 빈되 비록 츠취 부운과 가트나 정념은 명공게 돌니엿는 고로 척셔로 그릇 흐를 알너느니 영냥게 신작이 전흐던 신화를 츠저보고 회중 진면을 인흐여 밧비 가연을 일우고 텨기를 어그릇지 말나.(〈명행정의록〉 권2, 19-뒤.)

15) 소예주는 모함, 납치, 강간, 살인 등의 일을 배후에서 도모하는 반동인물이지만 그에 대한 작품의 관점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자색과 지식, 지혜를 겸비한 품위 있는 인물로 형상화되며 서술자는 그를 옹호하는 발언을 적잖이 하는바, 이러한 점은 그가 훗날 개과천산하여 위부에 다시 수용되고 현숙한 아내로 살아가는 결과와도 관련된다. 소예주의 인물 형상에 대해서는 서정민, 「〈명행정의록〉의 여성 형상화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고은임, 「한글장편소설의 관계 윤리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9, 101~107쪽.

이는 구현옹이 보낸 서찰이었는데 구현옹은 ‘천안천존’으로 불리우는 신선으로, 〈보은기우록〉에서부터 등장해 위연청과 그 가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도와준 인물이다. 그리하여 위연청과 그 가족들은 구현옹을 은인으로 여기며 그가 전하는 하늘의 뜻을 굳게 신뢰한다. 그런 그가 위천보의 혼인은 잘못되었으며 천정연분은 다른 데 있으니 바빠 가연(佳緣)을 이루어 천기(天機)를 어기지 말라는 내용의 서찰을 보낸 것이다.

이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위천보에게 이미 진용(眞容)이 전해졌다는 내용에 진위를 파악하는데, 과연 위천보가 몇 달 전 외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기이한 새 한 마리가 떨어뜨린 미인도를 주운 일이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허망한 일인 듯해 부모께 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천보는 그 일을 허망한 일이라 여긴 것이 아니었다. 성품이正大하고 예법을 중시하는 부모님의 성정을 잘 알고 있기에 이를 허탄한 일이라 여기실까 두려워 말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미인도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두근거렸고, 그림 아래 “이결천연(已結天緣)이니(임의 하늘 인연을 미즈시니)/ 비독인력(非獨人力)이라.(홀노 스릅의 힘이 아니로다.)/ 원악친현(遠惡親賢)하야(스오나온 거술 먼리호고 어진 거술 갖7이호여)/ 막휴기복(莫虧其福)하라.(그 복을 휴치 말나.)”<sup>16)</sup>라는 글과 함께 구현옹 세 자가 적힌 것을 보고 천정연분이 있음을 기대하고 있었다. 때문에 부인으로 맞은 이월혜가 미인도의 여인이 아니어서 다소 실망하기도 했다.

위연청 부부는 구현옹의 서찰과 위천보가 가져온 미인도를 몇 번이고 보며 필시 구현옹의 필체임을 확인하지만 위천보에게 이월혜가 아닌 다른 천정(天定)이 있다는 말을 난감해 하며 믿기 어려워한다. 그러나 의심의 증거를 찾을 수 없으니 천명을 거스를 수도 없다고 여겨 그림의 여인을 알아보게 한다.

16) 〈명행정의록〉 권2, 23- 뒤.

한편 머지않아 위천보는 과거에 급제하게 되고 유가(遊街) 중 소상서택에 가는데, 소상서가 돌연 위천보의 초상화를 내온다. 그러면서 어느 도동(道童)이 구현웅의 명으로 왔다고 초상화를 전하고 그 초상화의 인물이 딸의 배필이라는 전언을 들었다고 한다. 천보는 그 그림의 인물이 자신임을 한눈에 알아보고 천정연분이 소상서 딸인 소예주임을 알게 된다. 소상서 역시 위부에도 구현웅의 서찰과 딸의 그림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자 적극적으로 혼사를 추진하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 머뭇거리던 위연청도 이들의 두 번째 혼인을 허락한다. 이제 위천보의 두 번째 부인이 된 소예주는 위천보에게 친밀하게 다가가 이월혜보다 먼저 운우지정을 나누고, 원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계책을 차근차근 은밀히 실행해간다. 그런데 온갖 악행으로 위부에 환란을 가져온 소예주와 같은 인물이 어찌서 그의 천정연분이었던 것일까.

기실 두 사람의 천정연은 진정 하늘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이었다. 위부에 전해진 구현웅의 서찰과 소예주 그림, 소부에 전해진 위천보의 그림 모두 소예주가 직접 꾸며 만들어낸 일이었다.

소예주는 일찍이 진공 위연청의 승전 행진을 구경하다가 위천보를 우연히 보고 반하게 된다. 이때는 이미 위천보와 이월혜가 정혼한 사실이 알려져 있었는데 그림에도 소예주는 그를 향한 마음을 포기할 수 없어 “나 소예쥬 일노조츠 숙녀(淑女) 되지 못힐 거시오 또 녀교(女敎)더로 형신(行身)치 못흐”<sup>17)</sup>리라 예감하며 그의 두 번째 부인이 되기로 마음먹는다. 그 일은 드러내놓고 추진해서는 될 일이 아니기에 몇 달에 걸쳐 은밀하게 공을 들인다. 사람을 구해 구현웅의 필적을 어렵사리 찾아내고 그것을 직접 위조하여 천정연의 단서들을 만들어 위부와 자신의 부모 모두를 감쪽같이 속인 것이다.

17) <명행정의록> 권3, 29- 뒤.

다만 혜안이 있는 위연청 부부는 구현웅의 서간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는다. 천연(天緣)을 확인하며 칭찬하는 소상서 앞에서도 위연청은 구현웅이 일반 도사가 아니라 큰 신선이니 세속의 소사에 간여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며 신중하기를 당부한다.

“(…) 그 즈최 높이 구름 스이와 안지 장막 스이의 잇고 뜻이 쓴 구름과 빈  
 꽃 갖더니 더시 아닌 즉 세속의 즈최를 드러니지 아닐 거시오, 돈아의 혼인으로  
 뼈 가히 즐겨 간에히미 업는지라. 시속이 효효하고 세티 교스히니 즈방의 스회  
 진것 상산으로서 오미 아닌가 의심흔 즉, 왕흠약의 천세 또 뉘 손으로 낫시를  
 알니오? 소기지 못겜 거산 건곤의 체오, 알기 쉬운 거산 노쇼의 격이니, 형의  
 노성 유식흐므로 그 살피기를 상밀하라” (〈명행정의록〉 권4, 16-앞)

그러나 그밖에 위부와 소부 사람들이 모두 이 혼인을 원하고 특히 위연청의 부친마저 나서 천정연을 확신하며 혼인을 서두르니 위연청도 부친 뜻에 따라 아들의 두 번째 혼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시비로부터 이들의 대화를 전해 듣게 된 소예주는 혼사가 이뤄지게 된 일에 크게 기뻐하면서도, 시부가 될 위연청이 천정연에 의혹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골체(骨體) 구송(具悚)하고 한한(寒汗)이 침의(沾衣)”한다.<sup>18)</sup> 그러면서 위연청의 말을 하나하나 곱씹어 해석한다.

진시황 때 상산(商山)으로 피신했던 네 명의 노인 사호(四皓)가 장자방에 의해 “상산(商山)으로서 오미 아닌가 의심흔”한다는 것은<sup>19)</sup> 도동은 구현웅이 보낸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의심한다는 뜻이고, “왕흠약(王欽若)의

18) 〈명행정의록〉 권4, 22-앞.

19) 사호(四皓)는 진(秦)나라의 학정을 피하여 상산(商山)에 들어가 숨어 살던 상산사호(商山四皓), 즉 동원공(東園公), 녹리선생(角里先生), 기리계(綺里季), 하황공(夏黃公)을 말하는데, 한나라 고조가 태자를 폐하러 하자 사호가 산에서 내려와 태자의 우익이 되자 고조가 뜻을 바꿨다고 한다. 그런데 사호의 일이 장자방이 꾸며낸 것이라는 의심이 있었다.

천세(天書) 또 뉘 손으로 낫시물 알”수 있겠냐는 말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서(天書)를 얻었다고 사실을 날조했던 왕흠약(王欽若)처럼 누군가 서간을 위조했을 수 있다는 말이며, 속이지 못하는 것은 “건곤(乾坤)의 체(體)”라는 말은 서찰이 남자가 아닌 여자의 서체라는 것이며, 알기 쉬운 것은 “노쇼(老小)의 격(隔)”이라 함은 구현웅이 노인인데 글씨는 소년이 쓴 것 같다는 말이라는 것이다.<sup>20)</sup> 이에 소예주는 위연청 앞에서 감히 알팍한 술수는 부릴 수 없겠다 생각하지만 이월혜를 몰아내고 원위를 차지하겠다는 욕망은 접을 수 없어 음모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주변인들을 교사(教唆)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은폐하며 악행을 저지른다.

소예주는 이후 악행이 발각되어 벌을 받지만, 우선 자신이 원하던 혼인에 성공하고 개과천선한 뒤에는 다시 부부 관계를 회복해 혼인 생활을 해 나간다. 위연청까지 완벽히 속일 순 없었지만 천정연을 위조하여 상층여성인 감히 하기 힘들었던 자매(自媒)에 성공한 것이다.

고전소설에서 술하게 남녀 인연의 필연성을 암시하는 천정연은 소예주에 의해, 소예주의 욕망을 위해 전유되었고, 그렇기에 한편으론 위조된 천정연이 사람들을 얼마나 쉽게 속일 수 있는지 그것의 허구성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는 명 가정제라는 작품의 배경, 위연청을 통해 가정제를 미혹시킨 온갖 도술과 술사들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이는 작품의식과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간 스스로에 의한 행위들이 얼마든지 하늘의 뜻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될 수 있음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작품 저변에서 발견되는바 그 지점은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다.

20) “스회 상산으로서 오미 아니라 흐른 도동이 선옹의 부리미 아니라 니르미오, 왕흠약의 턴세 뉘 슈단인 동 알니오 흐른 서간을 위조하다 흐미오, 건곤의 체 다라다 흐른 이 분명 이 녀즈의 슈단이라 흐미오, 노쇼의 격이 각각이라 흐른 선옹은 늙고 글시는 쇼년이 빠다 니르미니, 꺾히서 보고 압히서 드러도 이러트시 신명치 못흐리니, 이 스텝의 집의 가 무삼 일을 흐며 무삼 계교로 원위를 도모흐리오? 속결 업시 눈섭을 낫초고 허리롤 굽혀 금글 즉훤 툃기되리오다.” <명행정의록> 권4, 23-앞.

### 3. 천정연 변주의 의의

〈쌍천기봉〉에서 천정연이 여성인물에게 행복한 결말을 보장하는 필연적 인연이 아니라 원치 않던 남성과 맺어져 힘든 혼인 생활을 하도록 이끄는 족쇄로 기능했다면, 〈명행정의록〉에서는 자매(自媒)가 불가한 상층여성인 원하는 혼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기능했다. 두 작품의 사례는 ‘운명적 인연의 행복한 결말’로 전개되는 서사구조를 구성해왔던 천정연 화소의 변주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패러디로, 패러디는 일찍이 조롱조의 모방이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반드시 조롱이나 풍자를 포함하지 않고, ‘차이를 내포한 반복’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로 쓰인다. 과거의 ‘풍요롭고도 위협적인 유산’을 가진 텍스트와 연관되면서도 그것과 비평적 거리를 두어 의도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21)</sup> 여기서 패러디의 범주는 전체 장르, 한 시대나 조류, 특정 예술가, 개별 작품, 작품의 일부분 등 다양한바, 고전소설에 빈번하게 나오는 천정연 화소 역시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출현은 고전소설이 천편일률적이라는 오늘날의 통념을 경계하며 그것을 패러디의 개념과 연결해 고전소설이 당대 독자들을 매료시킨 지점, 즉 비슷한 줄거리가 주는 ‘반복의 안도감’, 그러나 독자의 기대를 때때로 비껴가는 ‘변주의 새로움’에 대해 주목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sup>22)</sup>

21) 린다 허치언(Linda Hutcheon)은 패러디의 어원과 역사적 사용맥락, 인접 개념과의 차이를 살펴 기존의 좁은 의미의 패러디 개념을 비판하고 그 의미를 넓혀 재정의하였다. 그에 의하면 패러디는 반복이지만 차이를 내포한 반복으로 비평적 아이러니의 거리를 가진 모방이며, ‘초맥락성(Transcontextualization)’의 아이러니와 전도는 패러디의 중요한 형식적 작동이다. 린다 허치언, 김상구·윤여복 역, 『패러디 이론』, 1998, 문예출판사, 62~63쪽.

22) 정출현, 「고전소설의 ‘천편일률’을 패러디의 관점에서 읽는 법-전기소설 『금오신화』와 『오유란전』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38, 국제어문학회, 2006, 42쪽.

이 장에서는 고전소설에서 익숙하게 보이는 천정연 화소가 <쌍천기봉>과 <명행정의록>에서 패러디됨으로써 창출된 ‘변주의 새로움’에 집중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피도록 하겠다.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란 고전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화소로 대개 적강 화소와 결합하거나, 온갖 혼사 장애에도 주인공 남녀가 혼인에 성공하는 서사로 이어진다. 이처럼 천정연은 두 사람의 만남을 운명적인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완성된 인연, 행복한 부부 관계로 귀결되는 서사구조를 형성해 왔다. 특히 <숙향전>, <숙영낭자전>과 같은 적강형 애정소설에서 주인공들이 부모 의사와 무관하게 사사로이 맺은 애정 관계를 합리화하는 강력한 명분으로 기능한다. 조선의 남녀유별이라는 유교적 윤리, 그 윤리가 대변하는 부모의 권위보다 더 높은 하늘의 권위를 빌어 자유 연애를 금기 시하는 윤리에 맞서 애정 욕구를 타고난 것으로 긍정되는 의식을 드러낸 것이다.<sup>23)</sup> 작품에 따라서는 천정연의 설정이 관습적 투식으로 등장해 기존의 의미를 반복, 답습하면서 서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작품에 차용되며 새로운 기능과 의미로 변주되었다.

19세기에 이르러 <하진양문록>이나 <방한립전>의 천정연은 동성 간의 관계와 결부된다. <하진양문록>의 주인공 하옥주와 진세백의 관계도 천정연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들의 애정 서사는 동성애적 감성을 강하게 환기시킨다.<sup>24)</sup> 특히 적강한 사연이 흥미로운데 이들은 천상에서 남성과 남성 간의 관계로 설정된다. 하옥주는 천상계의 매화선이었는데 문곡성[진세백]과 바둑을 두며 함께 속세에 내려가 부부가 되면 좋겠다는 희롱을 하

23) 김일렬(1997), 앞의 논문, 278~282쪽.

24) 관련 논의는 고은임, 「한글장편소설의 동성애적 감성 형상화 장면-〈소현성록〉, 〈하진양문록〉, 〈명행정의록〉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66,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18, 103~107쪽.

고, 이 일로 죄를 입어 속세로 쫓겨난 것이었다. 이들의 대화에 노한 옥황상제가 벌을 내려 하강하게 되었다지만 이들의 천정연은 지상에서 성취되고, 결과적으로 선계에서 그들이 가졌던 욕망, 동성으로 만났지만 인간 세상에서 부부로 살아보고 싶다는 욕망이 실현되는 결과로 귀결된다. 매화선과 문곡성의 서사로 이 작품을 본다면 천상에서의 동성애적 관계가 현세에서 허용되는 방식으로 실현되는 과정에 천정연이 중요한 기능을 한 것이다.

한편 〈방한림전〉은 방관주와 영혜빙, 여성과 여성의 동성혼인을 그린 작품이다. 평생 남북개척한 상태로 살아가는 방관주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영혜빙이 각자의 이유로 혼인을 하고 지기의 관계로 평생 해로한다. 방관주와 영혜빙의 관계가 동성애로 명시되지는 않아 동성혼인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데, 이 작품의 젠더 위반에 대한 새로운 상상이 실상은 조선 후기 사회에 은폐되어 있던 동성애의 소설적 표현이었다고 주장되기도 했다.<sup>25)</sup>

그런데 이들 역시 천정연으로 맺어진 관계로, 전생에 방관주는 천상의 문곡성이었으나 부인 항아성[영혜빙]과 금슬이 너무 좋아 말은 소임을 소홀히 한 탓에 상제의 벌을 받아 지상 여자로 태어나게 되었고, 영혜빙과의 인연이 지상에서도 이어진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말하자면 이들의 동성혼인은 천정에 의한 것으로, 전생 남녀의 부부 관계가 현세의 동성혼인 관계로 이어지며, 현실에서 인정되지 않는 방식의 동성혼인 서사가 천정연에 의해 놓일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sup>26)</sup>

이처럼 천정연은 부모의 반대나 신분 간의 격차를 무릅쓴 남녀의 사랑을 정당화하는 명분에서 더 나아가, 19세기 〈하진양문록〉, 〈방한림전〉과 같은 작품에 이르러서는 동성 간의 만남과 연결되며 당대 더욱 금기시된

25) 김정미, 「젠더 위반에 대한 조선사회의 새로운 상상-〈방한림전〉」, 『한국고전연구』 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26) 김정미(2008), 위의 논문, 207쪽.

관계 서사에 명분을 부여하고 급진적 설정의 충격을 완화하며 소수자의 서사를 세상에 내놓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천정연 화소가 작품마다 구체적으로 다른 성격과 의미를 지니며 변주되면서도 남녀 사이든 동성 사이든 금기시된 관계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작용하며, 그들이 운명적으로 결연하여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서사 구조를 마련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두 작품에 드러난 천정연은 새로운 양상을 띠며 전혀 다른 서사적 의미를 지닌다.

〈쌍천기봉〉 소월혜의 삶에서 천정연은 결코 긍정적인 계기가 되지 못하였다. 이몽창과 혼전의 우연한 만남부터 불고이취와 절혼을 거쳐 이부며느리로 인정되기까지의 쉽지 않았던 혼인 과정, 혼인 이후의 처첩 갈등과 그로 인한 유배 생활, 서사 결말부까지 지속된 부부 갈등의 지난한 삶이 전개되는 가운데, 소월혜가 남녀 간의 사랑이나 부부 관계의 행복감을 느끼는 장면은 찾아보기 어렵다. 갖은 수난을 겪은 뒤 이부로 복귀해서는 높아만 가는 남편의 지위에 따라 복록을 누리고 자녀를 양육하며 복된 삶을 사는 듯하지만 남편과는 좀처럼 화합하지 못하는 것이다.<sup>27)</sup>

천정연에 따라 혼인을 하지만 그것은 소월혜에게 잘 맞는 배필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일구는 계기가 되기보다, 원치 않은 혼인과 고달픈 혼인 생활이 자신의 숙명이라 여기며 견디게 하는 이유로 작용한다. 여기서 천정연은, 삶에 대한 선택권이 결여된 상황, 특히 혼인과 관련해서는 주체적 의지를 내보이기 힘든 여성의 처지를 드러내 주며, 한편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하늘의 뜻이기에 그로 인한 온갖 일들을 견뎌낼 수밖에 없다는, 수난에 대한 당위적 사고 혹은 운명론적 사유를 갖게 한다. 그런 점에서

27) 작품 말미에 이르러 이부 여성들이 모여 환담하는 자리에서도 소월혜는 시누이의 부부 관계에 대한 하소연에 호응하며, “(…) 내 몸 닳그른 못 밋힐 듯허다가 더러운 욕이 몸이 닳흐니 구텨 야디의 혼 구석 밋친 한은 풀니지 아니허리이다.”라며 부부 생활에서 쌓인 한이 여전하다고 토로한다. 〈쌍천기봉〉 권18, 68쪽.

〈쌍천기봉〉의 천정연은 소월혜에게 있어 애정 관계와 무관한 것이며 오히려 애정과 관련된 감정을 속박하고 억압하는 기제, 혹은 현실의 부조리한 수난에 체념토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고 할 수 있다. 한 쌍의 팔찌로 연결된 천정연은 결코 낭만적인 러브스토리나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지 않고, 여성인물의 수난을 야기하고 그 가혹한 운명에 순응하도록 이끄는 것이 되었다.

반면 〈명행정의록〉의 소예주는 적극적으로 천정연을 전유하여 자신의 욕망을 이루었다. 그는 감히 하늘의 뜻을 위조함으로써, 감히 여성의 규범을 넘어 스스로 원하는 상대를 선택해 혼인했다. 소월혜의 사례와는 반대로 소예주의 애정 욕망을 실현하는 계기로 천정연이 쓰인 것이다.

이처럼 이전 작품들에서 천의(天意)의 진정성이 전혀 의심되지 않으며, 그렇기에 세속의 규범에 대항해 남녀의 자의적 만남과 사랑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될 수 있었던 천정연 화소는, 〈명행정의록〉에 이르러 규범에 어긋난 욕망을 은닉하면서 자의적 혼인을 위한 도구로 조작되고 활용될 가능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천의가 얼마든지 가칭될 수 있다는 위협성을 폭로하는 것이기도 하다.

〈명행정의록〉은 명나라 가정제를 배경으로 전개된바 실제의 가정제도 도교에 심취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작품 속의 가정제 역시 도사들을 가까이하며 그들을 맹신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그러한 사태는 위연청에 의해 강력히 비판되는데, 위연청은 황제를 보필하며 황제를 현혹하는 도사나 단약들이 샅된 것이라 지적하고 그 폐단을 없애는 데 앞장선다. 그런데 구현웅의 등장에서 알 수 있듯, 〈명행정의록〉은 도가적 세계나 그것을 매개해 제시되는 천의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인공이나 그 가문의 위기가 신선인 구현웅에 의해 해소되며 천의가 그에 의해 전달된다.<sup>28)</sup>

28) 관련 내용은 채윤미, 「〈명행정의록〉의 구현웅 형상의 특징과 의미」, 『동서인문학』 58, 계명대 인문과학연구소, 2020.

위연청 부부가 무엇이든 결정할 때 가장 고려하며 고심하는 부분도 천의에 부합하는가의 문제이다. 고전소설 대개가 그렇듯 하늘의 뜻은 이 작품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샅된 도사, 도술이 천의를 가장해 가정제를 현혹한 것처럼, 하늘의 뜻이라는 모호한 것이 얼마든지 인위적으로 조작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계하고, 그 진가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는 현실적 인식이 이 작품에는 드러나 있는 것이다. 위연청이 아들의 천정연분에 대한 증좌들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것도 그러한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쌍천기봉〉이나 〈명행정의록〉은 천정연의 서사적 관습을 취해 그 토대 위에서 서사를 전개하면서도, 천정연분이 혼인 관계를 속박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거나, 그것 자체가 허구일 가능성을 폭로하는 방식으로 천정연의 의미를 새롭게 변주했다. 두 작품에서 변주된 천정연은 더 이상 이상적 애정 관계,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심지어 인간의 욕망에 의해 조작, 전유되면서 기존에 천정연이 부여한 남녀 결연의 필연성, 운명적 성격까지 회의하게 한다. 이로써 보면 얼핏 천편일률적으로 보이는 화소 하나도 작품마다 흥미롭게 변주되면서 작품의 새로운 의미와 미감을 구성하며 고전소설의 세계를 다채롭게 만들어가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4. 맺음말

〈쌍천기봉〉과 〈명행정의록〉에 나타난 천정연 화소는 서로 상이한 방향으로 변주되었다. 기존 고전소설에서 천정연은 대체로 초월적 명분을 통해 남녀 결연을 정당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화합과 해피엔딩에 이르는 서사적 장치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쌍천기봉〉에서 천정연은 여성인물에게 선택을 제한하는 구속의 논리로 전환되어, 오히려 고통스러운 혼인과 수난의

삶을 지속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했다. 이는 천정연을 통해 구현되던 운명적 결연의 긍정적 의미가 해체된 사례라 할 수 있다. 반면 <명행정의록>에서는 천정연이 인간의 욕망에 의해 적극적으로 조작, 전유되는 양상이 드러났다. 소예주는 하늘의 뜻을 모방, 위조함으로써 천정연의 권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규범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자매를 실현하였다. 이러한 서사 전개는 천의의 현실태를 결코 맹신할 수 없으며, 오히려 현실적 욕망과 권력 관계에 의해 쉽게 변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두 작품은 천정연이 고정된 관념적 장치가 아니라, 반복과 변주의 원리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생성하는 서사적 구성 요소임을 시사한다. 나아가 천정연의 변주 양상은 고전소설이 천편일률적이라는 통념과 달리 동일한 화소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내적 논리와 미학적 효과를 창출해 왔음을 보여준 사례로서 의미가 깊다 하겠다.

## 참고문헌

- 『쌍천기봉』, 한중연 소장본 18권 18책(장시광 역, 『쌍천기봉』 1~9, 이담, 2019, 1~455쪽.)
- 『명행정의록』, 한중연 소장본 70권 70책(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 『명행정의록』 1~9,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1~139쪽.)
- 고은임, 「한글장편소설의 동성애적 감성 형상화 장면-〈소현성록〉, 〈하진양문록〉, 〈명행정의록〉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66, 민족문화사학회·민족문화사연구소, 2018, 91~121쪽.
- \_\_\_\_\_, 「한글장편소설의 관계윤리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9, 1~235쪽.
- \_\_\_\_\_, 「한글장편소설 여성인물의 비혼(非婚)에 대한 회구(希求)-〈쌍천기봉〉, 〈보은기우록〉, 〈임화정연〉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43, 국문학회, 2021, 251~282쪽.
- 김경미, 「젠더 위반에 대한 조선사회의 새로운 상상-〈방한립전〉」, 『한국고전연구』 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189~216쪽.
- 김일렬, 「조선조 소설에 나타난 효와 애정의 대립-〈숙영낭자전〉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4, 1~154쪽.
- \_\_\_\_\_, 「애정소설에 나타난 천정연분론」, 『개신어문연구』 14, 개신어문학회, 1997, 269~284쪽.
- 김진영·차충환, 「화소의 결구방식을 통해 본 영웅소설의 유형성」, 『어문연구』 29(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1, 150~173쪽.
- 노보윤, 「방각본 고소설의 결연서사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24, 1~194쪽.
- 류상숙, 「초기 고전소설의 천관님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20, 1~144쪽.
- 린다 허치언, 김상구·윤여복 역, 『패러디 이론』, 1998, 문예출판사, 1~294쪽.
- 서정민, 「〈명행정의록〉의 여성 형상화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0,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5, 279~300쪽.
- 양혜란, 『조선조 기봉류소설 연구』, 이회문화사, 1995, 1~411쪽.
- 이명현, 「고전소설에 나타난 천관님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04, 1~220쪽.
- 이상구, 「〈숙향전〉의 문헌적 계보와 현실적 성격」,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4, 1~304쪽.
- 이승은, 「숙향전: 경계 허물기와 동일시의 서사」, 『고소설연구』 44, 한국고소설

- 학회, 2017, 97~126쪽.
- 이지하, 「〈쌍천기봉〉 연작의 문제적 남주인공들과 지배적 남성성의 허상」, 『고소설연구』 58, 한국고소설학회, 2024, 5~34쪽.
- 장시광, 「〈쌍천기봉〉 여성수난담의 특징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187~232쪽.
- 정출현, 「고전소설의 ‘천편일률’을 패러디의 관점에서 읽는 법-전기소설 『금오신화』와 『오유란전』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38, 국제어문학회, 2006, 35~63쪽.
- 채윤미, 「〈명행정의록〉의 구현웅 형상의 특징과 의미」, 『동서인문학』 58, 계명대 인문과학연구소, 2020, 29~57쪽.
- 탁원정, 「〈쌍천기봉〉 연작의 혼인담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분노」, 『고소설연구』 39, 한국고소설학회, 2015, 213~246쪽.
- \_\_\_\_\_, 「정신적 강박증과 육체의 지병-국문장편소설을 대상으로」, 『고소설연구』 41, 한국고소설학회, 2016, 113~144쪽.

## ABSTRACT

Variations of the Heaven-Ordained Union(天定緣)  
in Classical Korean Fiction

: Focusing on *Ssangcheongibong* and *Myeonghaengjeonguirok*

Ko, Eun-im

This article analyzes variations of the heaven-ordained union(天定緣), a recurrent narrative motif in classical Korean fiction traditionally associated with marital destiny and harmonious resolution, focusing on *Ssangcheongibong* and *Myeonghaengjeonguirok*. In earlier scholarship, the heaven-ordained union has been understood primarily as a narrative device that legitimizes romantic relationships by transcending parental opposition and social or status-based constraints, thereby ensuring the successful culmination of marriage. However, these two late Joseon-period works present distinct departures from this conventional function. In *Ssangcheongibong*(18th century), the heaven-ordained union compels the female character Sowolhye to enter and sustain an unwanted marriage, producing a prolonged experience of conjugal suffering rather than emotional fulfillment. The motif thus operates as a narrative mechanism that restricts female agency and frames marital hardship within a fatalistic logic. By contrast, *Myeonghaengjeonguirok* (19th century) depicts the female character Soyeoju's deliberate fabrication and appropriation of a heaven-ordained union in order to achieve self-arranged marriage(自媒), a practice normatively prohibited for upper-class women. In this case, the heaven-ordained union functions not as an unquestioned expression of transcendent will but as a manipulable discourse mobilized to authorize individual desire.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these two works, this article demonstrates that the heaven-ordained union is not a fixed ideological construct but a flexible narrative element subject to transformation. The observed variations

highlight how classical Korean fiction generates new meanings through the repetition and modification of familiar motifs, while also engaging with contemporary marital norms and gendered social constraints.

**Key Words** classical Korean fiction, heaven-ordained union, variation, parody, female characters, marriage narrative, suffering, appropriation

논문투고일: 2026.01.15. 심사완료일: 2026.02.02. 게재확정일: 2026.02.05.
--